

순창읍 중앙로 지중화 사업 본격

24일 전선 관로 매설작업 착공

순창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순창읍 중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오는 24일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순창읍 중심인 중앙로 양방향 1.2km구간과 교육청 사거리 좌우측 130m 구간(순창읍사무소 방향)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선 및 통신주, 전선 등을 정리해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최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4곳과 최종 간담회를 갖고 협업체계 구축 강화와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막판까지 지속적인 조율을 이어가며 사업성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창읍 중앙로는 순창 IC를 잇는 순

창 대표 도로로 금융사를 비롯, 공공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발달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또한 순창 IC를 나오면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도로여서 순창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내중심지다.

군은 지중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미관개선을 위해 '클린순창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중앙로 양측 가로수 제거작업을 통해 시야가 확보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등 사업추진에 성공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공사는 중앙로 서쪽(순화리 방향)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고

압선 지중화 공사가 먼저 시행되며, 인도 확·포장공사 등이 뒤이어 시행돼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기존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확대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한편 도로폭을 3.25m에서 3.0m로 축소해 차량의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경천변 경관조명과 어울리는 야간 조명 설치와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순창을 대표하는 명품도로 건설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 사업으로 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클린순창에 걸맞은 중앙도로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공동체 새길 시민과 함께 연다

20개 사업 선정, 이달부터 10월까지 추진 계획

남원시가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3년차를 맞으며, 그동안 마을공동체 창안대회를 통해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추진한다.

20개 사업(표 참조) 중 15개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전하는 '새싹 사업'이고 5개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선정된 '줄기 사업'이다.

새싹 사업으로 선정된 산내면 싱글방글방의 '비니투 없는 점빵'은 환경오염과 생태계를 급속하게 파괴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에서 시도됐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싱글방글방의 제안을 받아들인 산내에서 음식을 먹기 위한 손님들은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 등 자신이 사용할 물품을 자참해야하고, 장바구니 등 용기를 가져와 물건을 구입하면

할인이나 담을 얹어주는 재미난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운동능력개선협의회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속담에 발맞춰 매월 3째 주 토요일에 운봉 서림공원에서 학부모들과 장터를 열어 생활에 필요한 체험학습 교육과 함께 아나바다 등의 마을시장을 진행한다.

한편 남원시는 2019 우리마을 공동체 창안대회를 오는 11월 2일 남원시 공동체 한마당에서 펼쳐 그동안 쌓았던 기량과 단합된 의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운암면 운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활발

총 사업비 25억원 투입... 현재공정률 65%로 오는 2020년 6월 준공 목표

임실군이 운암면 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운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균형적인 하수도서비스 구현을 위해 2015년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국비 등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공정률 65%로 오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군은 운암면 운정마을 일원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루 처리용량 90톤의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하수관로 2.6km를 설치하여 44가구의 배수설비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가정 내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모아 미생물의 자정작용 원리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분해·침전·분리한 후 깨끗한 물만 방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나 해당 사업이 끝나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인근에 있는

육정호와 지방하천, 소하천의 수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철 상하수도과장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미반영 지역은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남원시 '의료급여제도 바로알자'

20일까지 향교동 시작으로 7개소 순회 교육

남원시는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일간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남원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월 말 현재 4,907명으로 시 인구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타법 의료급여대상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 의사상자 등이 있다.

교육 일정은 향교동을 시작으로 일정별로 7개소(도동동, 왕정동, 노암동, 금동, 동충동, 죽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교육에서는 신규 의료급여 취득자와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해 90여명으로 교육을 통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의료

급여일수 연장승인, 지정병원제도 및 올해 개선된 노인틀니,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검진, 약검진 안내와 함께 올바른 약복용법,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보조를 전달해 질환에 대한 원인, 증상, 치료, 관리, 예방수칙 등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질병이나 노령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 의료급여는 많은 복지제도 가운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적절한 장기입원 환자의 증가, 필요 이상의 의료이용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의료급여 관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구 주민복지과장은 "하반기에도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 찾아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은 5층 산모보건센터 교육실에서 11월까지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원의료원,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11월까지 5층 산모보건센터

남원의료원은 5층 산모보건센터 교육실에서 5~11월까지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태교방법 및 중요성, 육아용품 만들기, 신생아 관리, 이유식 만들기, 모유수유 방법 등과

출산 후 산모들이 겪기 쉬운 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의료원 관계자는 "건강한 육아 도모, 산전·산후 우울감 경감 및 건강한 산모관리,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임신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A형간염 예방수칙 당부

임실군(군수 심민)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평균 28일 후 증상이 발생되며, 초기에는 감기증상처럼 발열, 두통, 복통, 피로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고 황달, 갈색 소변 등 증상이 발현되기도 한다.

소아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성인인 70% 이상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는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고열, 황달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된다.

군 관계자는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조개류는 90°C 이상에서 4분 이상 가열해야 하며, 채소나 과일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2~23개월의 소아나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환자, 외식업종사자, 의료인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규)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1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기 의원 대표발의), 순창군 군민안 전보험 운영 조례안(손종석 의원 대표발의), 순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준신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일부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정성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개원이후 1년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들께 감사사를 전했다. 이어 동료의원에게는 "세심한 심사를 통한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